



리춘백 장군

리춘백 장군은 1910년 9월 4일에 원동
변강 연해구 하산구역 부로지노 촌에서 탄생하
시였다. 1918년에 향촌에서 소학교에 입학하여
1922년에 소학교를 마감하시고 다음 계속 초중
에서 공부하시여 1925년에 초중을 필하시였다.

향촌에는 고중이 없는 관계로 초중 졸업후 일년동
안은 하골으로 유학하려 기어코 양교 향촌 학교에
서 소년단 지도원 일을 하리면서 주로 아버지의 뒤
를 돕아 농사일을 돕아주었다. 그 당시 원동에서 살
고 있는 한인 생활 형편에서 이곳에 유학간다는
문제는 험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공부하려는 생
각이 들끓는 리춘백 선생은 일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1926년에는 리선생의 결심에 고증이 있는 도시로 떠나려 하였으나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곤 있다가 그래도 원동에서 일어나고 큰 도시인 블라지보스토크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블라지보스토크에는 해삼 신한촌이라고 부르는 한인들이 집결하여사는 큰 한인촌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원동 변강에 고증이라고는 두곳 즉 블라지보스토크와 브르시예프 구역 노보기예프스크시에 있었으며, 우수리시에 사범전문학교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인 대학은 아직 원동에 한인기대중에 대학공부를 하기 위하여서는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로 가야 하였다.

리선생은 1926년에 해삼한인고증이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면서 교내 각종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석하면서 특별히 공청회 사업에 열중하였다. 리선생은 1929년에 고증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중앙러시아 연도시들에 유학을 떠날수 없는 경제호대가 없는 관계로 고증 졸업후 동고증에서 하급반 교원으로, 소년단 교양자-지도원으로 일하기를 결정하였다. 리선생은 이당시 비남자, 비장가 청년으로서 아주 위엄은 혼사형편도 많았으나 아직 능숙 습직성을 채가시지 못한 아주 수질하고 청백한 자기의 절개를 지키며 어린후대의 할수 그대로 훈장이었다. 이렇게 3년이 지나자 1932년에 리선생은 장가를 들고 동년 9월에부터는 근대에 초병되어 정규 군사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래 체력이 튼튼한 건강체에 상식까지 방불한 리선생은 2년이 지나자 하사관 학교에 추천되어 그것은 1934년 초에 필하고 특무상사의 군사행도를 받는 한편 부소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당시에 리선생이 복무한 군부대는 원동변방 특수군단³에 속한 76 연대였으나 이 연대는 본래 시베리아 간스크시에 주둔하여 있다가 1929년에 있는 중동철도 사변과 관련되어 원동에 이동하게 되었던바 그후 중동철도 사변이 소련군대의 대응리로서 종결되자 76 연대는 제독 노왕령(우부리스크)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원동에서 군사복무에 소모된 항인들은 전부 다 이 76 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이하에 대한 북한 인민군 단코 사령관 최필덕 장군, 소련 사회주의 이공로 총영장 김병화씨, 76 연대가 속한 32사 95 연대장 정필도르 이와노비치 대좌 (소련 조국전쟁시 싸라도브시 방어전에서 영웅적으로 전사) 76 연대 중대장으로 중동철도 사변에 참가하여 "적성" 훈장을 수여받고 대대장으로 승급되고, 황가리 부대장으로서 전후에 전사한 소련 영웅적 지휘관 김동국 (김범트르 루미치, 중동철도 사변에 영웅적 의훈을 발휘한 김유경 소대장 등 영웅적 지휘관들은 전부 다 이 76 연대가 배출한 간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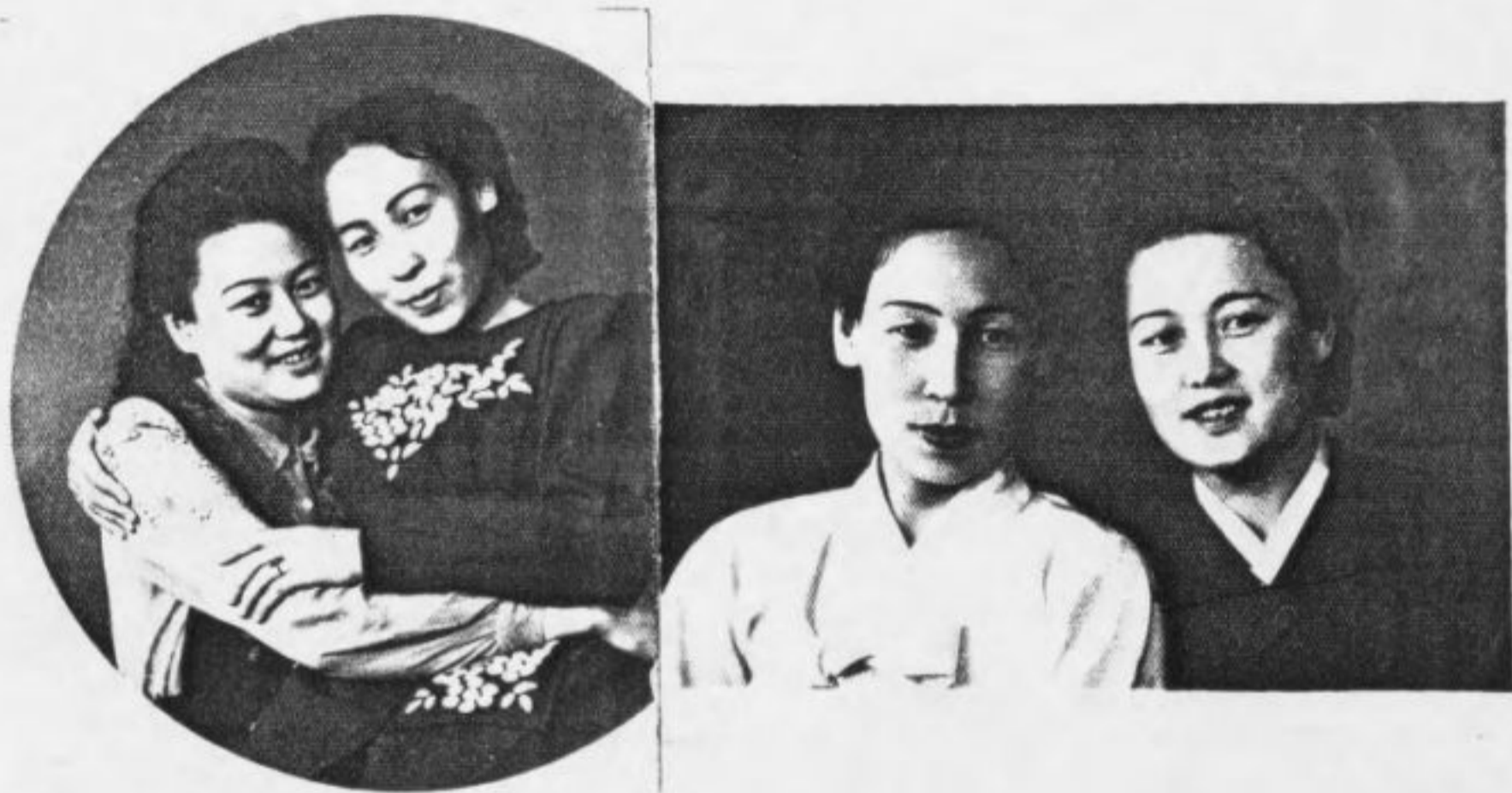
이러한 권실적인 연대에 복무하게 된 것을 리훈백 선생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허사란 학교를 졸업하고 부대장으로 임명된 것을 따주 기쁘게 접수하고 그후 허백 사변들을 모험적으로 전후 정치훈련에 참가시켜 모험적 군구원대로 1명 1명 귀화하고 리훈백 선생 자신은 추후 상복지휘관으로 복귀 포함을 받게 되었다. 그후 리선생은 중대특무장으로 또 연대 민청 위원장까지 선거 받고 복무하시다가 1936년 5월에 소련군대에서 제대되어 집에 돌아와 오빠일관 씨시다가 블라지보스크로 사대에 공복하여 떠났다. 사대 입학 꼬리시어에 문건을 접수시킨 리훈백 선생은 붉은 군대 제대 군인으로



이 옷 사진은 리춘백 선생이 기로브 한인 고공에서
 교장으로 계시시 찍은 것이다. 앞줄 중앙에 앉으신 분이
 리춘백, 우편 박태섭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장, 좌편 -
 박준 - 조선인민군 30보사 정치부장, 또 곁에 앉으신분 박일우
 - 조선인민군 1단군 기술지휘국장, 뒷줄 우편 최불길 (장은길)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리춘백 선생이 사임하신 이후 교원들은 전부다 북한에
 가서 책임적 간부로 일하시었다. 이밖에 지극한 간부들 외에 드
 기로브 고공에서 일하시던 분은 현희안 선생 - 내각직속 고
 공직로 학교 교무주임으로, 박태준 선생 북한 로동성 차장으로 계
 신분들은 동 학교 출신이며, 리춘백 선생 직전에 교장으로
 계시던 강성호 선생은 북한 내무성 총정치국장 겸 차장
 개성 점선 당판 위원회 조종측 부석 대표 등 책임적 직위
 들을 지내시었다. 어느때나 어디서든지 동지적 관계를 잘 맺
 고 조직적 지도적 수반이 강한 리춘백 선생은 기로브 고공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리춘백 선생은 1945년 7월 밤에
 초문 뒤에 초원군대에 복복하게 되었으며 처음 초원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을 해방시킨 초원군은 38선을
 정계로 하고 어남은 미군사령부, 어북은 소련 사령부가 조직되어
 조선 헌법을 수립하게 되었다. 리춘백 선생은 함경북도
 청진시 도사령부 총선임원으로 각 시군 사령부 일선에 협조하
 며 일하는 동안 북한 농지개혁, 다음 산업개혁등을 실시하는 한
 편 헌법준비 조직에도 많은 관심을 돌려 열심히 일하시었다. 다음
 1946년 8월에 조종되어 평양에 올라온 후 내각직속 고급직은
 간부학교에 파견되어 전문 학사 과정을 이수하시게 되었고
 이란 과목의 담당 교원으로 일하시었다.



사진들은 리춘백 선생이 내각간부학교 교원으로 계실시
 리 선생의 복원 (첫 사진에서 좌, 두번째 사진에서 우) 정류드
 밀라와 채 다 지야나. 두분은 그 당시 내각간부학교에서
 로어 교원으로 일하시었다.

리춘백 선생은 사동간부학교에 가장 위신있는 교원이었다 그것은
 그 선생이 강의한 과목이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위신있는 과목이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은 독일 파쇼주의가 패망하

고 소련이 승리자라 된 전쟁이며, 그 결과에 새로 9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조직된과 북한도 일제에서 해방된 사회주의
 의 국가로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과목의 강의를 진행할시 리선
 생은 자기 자신도 그 전쟁의 승리자의 한사람으로서 자존 자부
 심을 감추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북한의 전체 고급 간부-각군당
 위원장, 인민위원장으로 부터 각도 위원장 부위원장, 각성 상
 등, 부상급을 대상으로 하여 1948년도 부터는 남한 대의원
 반이라고 조직하고 남한에서 들어오던 대의원들을 공부시키던
 한편 인민군 고급 정치 지도 간부-즉각 연대, 사단 및 중앙
 정치 총국 고급 기관들로 대상으로 하여 한개의 조를 조직
 하여 공부시켰다.



사진은 리훈백 선생의 부인과 그의 아들 형제
 즉 리 빌로리, 리 스타와. 가치 찍은 것이다.

리훈백 선생은 내각 직속 간부학교, (또 학교로 사들간북
 학교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그 학교가 있던 지방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도 불렀다.)에서 4년간여나 위신있게 일
 하시였으나, 1950년에 동쪽 상잔인 6.25가 시작

되자 자기가 최리할 위치는 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8,
 전선에 나갈것을 꿈꾸었으나 일은 정반대가 되었다 이 당시에
 소련원동군 제1전선 사령관이 중국 러순반도 뽕느-아뚜르로 가는
 길에 평양에 들렀다가 소련군 정치부에 좋은 흥역원을 요구
 하니 정치부는 리훈백 선생을 지명하여 소련 전선 사령관
 하고 동행케 하였다. 전선 사령관은 소련으로 귀양하면서 리훈
 백 선생을 뽕느-아뚜르에 구둔한 소련군 흥역원으로 남게 되고
 가셨다 리훈백 선생은 하늘을 없이, 군원뿐이라 사령관이
 명령대로 1950년 10월까지 연 임대월간 거기서 복록
 하게 되었다. 최후 다시 북한 조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
 장 허가이라 ~~최고~~ 사령관 김일성에게 제이하여 소련군 원동
 제1전선 사령관의 동의를 받아 북한에 귀환하게 되었으며,
 1950년 10월말에 여2 현민군 때에 업이하게 되었으며,
 조선인민군 제7군단 참모장으로 임명 되면서 소장 군사
 칭호를 받게 되었다. 1951년 2월에 제7군단이 예비
 군으로 부터 전선 북군 강원으로 석왕사에 이동 되면서 리훈
 백 선생은 군단 군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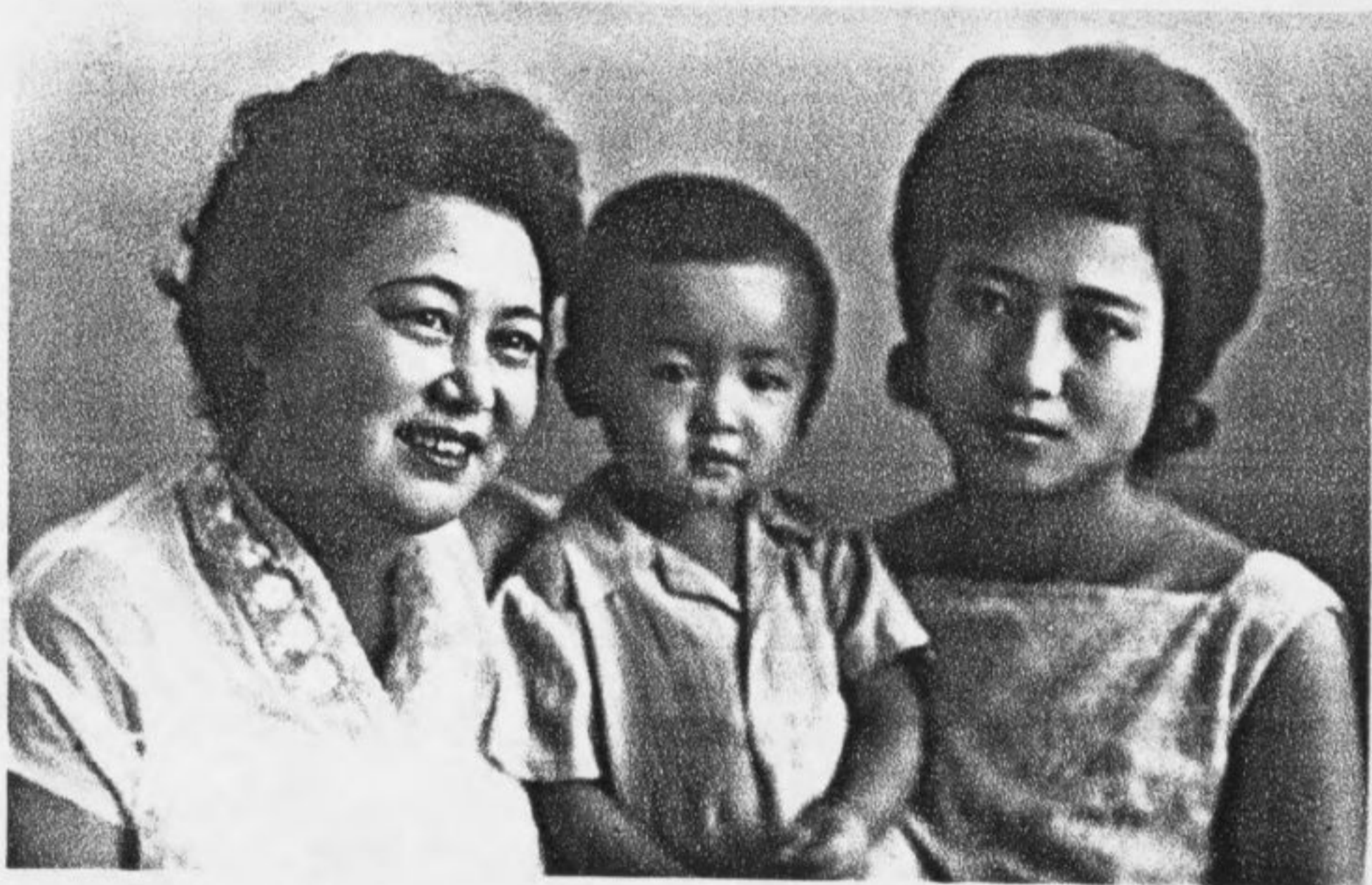
사진은 1951년 3월 중순경 배치 정형을 짐작
 하면서 흠뻑하고 있는 장면: 좌로 부터: 리훈백 소장 -
 군사위원, 리영호 중장 군단 사령관, 김봉을 보위성 부상.

조선인민군 제 7 군단은 동북 전선의 주요 실역으로 방어하고
 있는 제 5 군단의 중요 지행력으로 있으면서 전쟁의 끝없는
 시기에 그의 원함부대들을 고쳐하여 공화국 영토들을 사수
 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 항상 움직이고 고쳐되고
 있는 행진에 앞을 가로 막아 없어 잘 준비된 구별대나, 부대
 또는 연함부대를 전전한 사냥적 준비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별히 1950년 이후 한달
 도이 끊임없이 주로 전진전을 진행하면서 장기간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 전선 사병과 군관들의 지족감을 느끼게 되었다.
 전쟁도 야만인 평화도 야만인 형태에서 서로 적과 적은 농민
 말려누고 있었으나, 나가지도, 퇴보하지도 못하고 큰 음모만어린
 긴 세월을 끌고 있었다. 때문에 산골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말하리 "속히 김일성이 어기면, 어음만이 어기던 끝을 내면
 우리에게 농사 짓을수있는 조건을 달라"고 소리쳤다. 이러한
 형편에서 사병과 군관들의 규율은 자연히 저하되고 안일
 복화할 행동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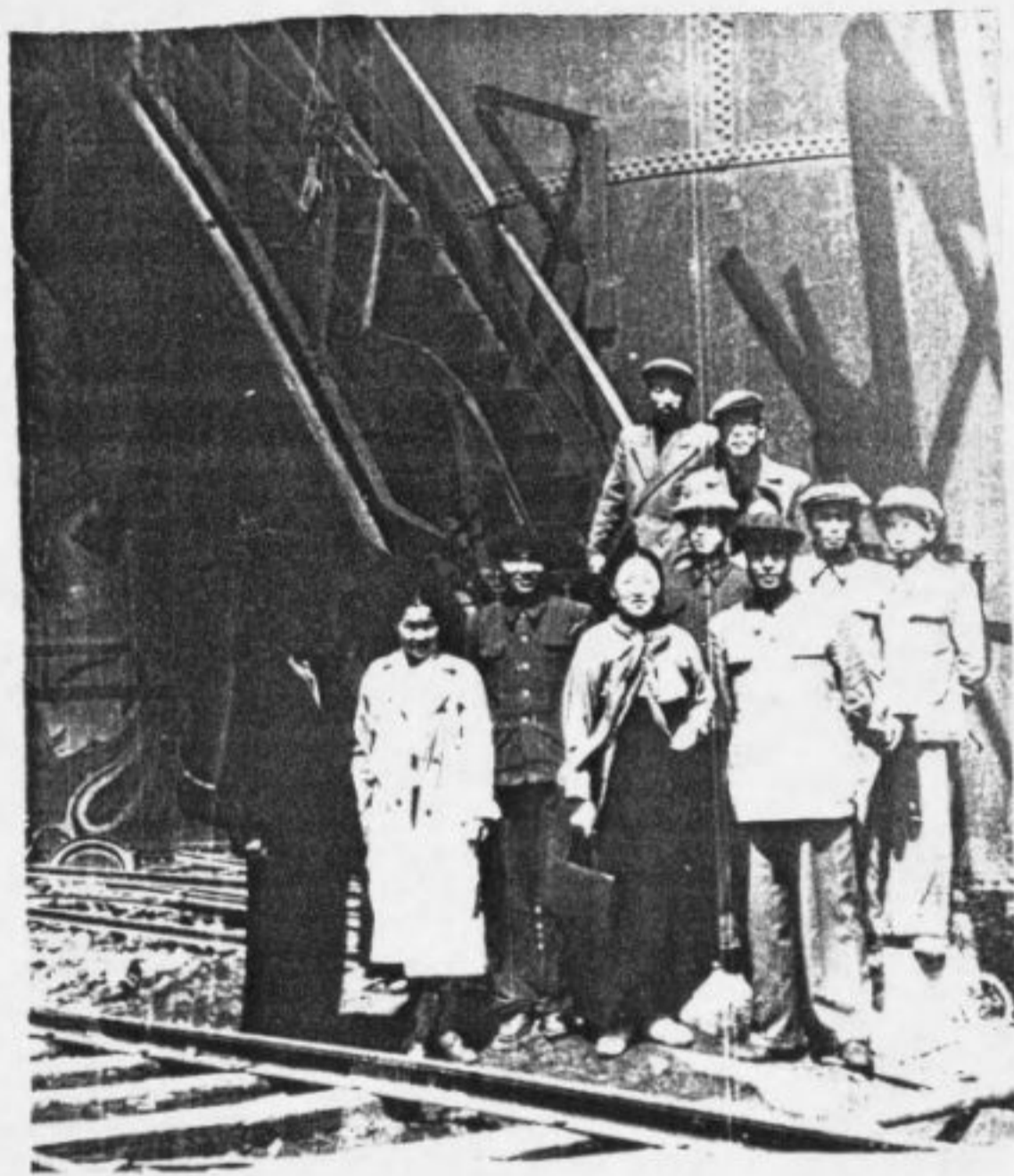
사진은 1952년 12월에 평양의 "조선신보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우로부터: 리춘백, 현희안, 신이철, 임원봉, 박계와심,
 김철우, 김명환, 장학봉. 당중앙전원회의에 참가한 기획였다.

지루하게 끝난 상륙항어 진지 전은 큰 공삼년이나 지방농촌
 이나 도시나 할것없이 인민들의 생산활동을 제한하여 인민 생활은
 더 말짱바 없어 파탄되어 상급들은 큰주리고 월병고 추운 겨울
 이면: 더한번서 전쟁의 종말한 기다리였다. 전쟁은 유언의 간
 섭이 이하에 중단되였고 군사분계선은 동쪽 상강 개시전보다
 좀 달리 동해안에서는 고성에서 출발하여 월연 남쪽에
 이르러 압진강 계선을 따라 서해에 이르러 용진만으로
 북해에 이르러지게 되였다. 전쟁전 38선이 비하선 서
 해 해안에 있어서는 남쪽 프랑어 많이 북에 들어가고, 동해에 있
 었어서는 산악지대가 많이 남한에 넘어가게 되였다. 이
 점은 군사 정전단판에서 그 문건을 조인하는 1953년 7월 28일
 현재 양측 군이 차지하고 있는 북의 선을 실제 양측의 군사
 행동의 분계선으로 정하면서 그 분계선은 나 끼로레타의
 비무장 지대로 정하여 정기 때 나온다.



사진은 리춘백 선생의 딸 쓰베라가 자기
 아들 유라와 같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11.
 정권 조약이 조인되자 리춘백 선생은 군대에서 제대
 되어 생산 기지 복구사업에 동원되었다. 즉 1953년 9월
 에 홍원시 황태 석철공장 지배인으로 임명되었다. 이 홍원
 제철은 조선에 있어서 제2차, 성진제강 다음에 손꼽
 히는 대공업공장인 것이다. 전쟁전에는 그러하였지만 전
 쟁 중년에 파괴되므로 확고한 공장을 완전한 정지 상
 태에 이르러 용광로들은 여수련 제철로 생산하지 못
 하고, 전쟁전에는 높은 수로로 생산하던 원공용철을 생산
 하지 못하였다.



사진은 1954년 3월에 리춘백 선생이 상북에서
 내려오신 당 정권책임자들과 함께 현지 시찰 촬영.

리선생은 다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러(원) 고의 노동자들을
 불러 모아 살려야 하였다. 공장에서 생산이 정지되고 보
 도 노동자들은 전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 공장
 은 생산이 없고 생산이 정지되고 보니 노동자들은 제철을

후진하다 싶어 그 경제 영감을 직히 얻었을 뿐이지 생산품
은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리 선생은 공공업성리 건설한 관계하
에서 조속한 시일내로 노련으로 불어 또는 중국으로 복귀 공장복구에
요구되는 기계와 기계부속품 등을 주문하여 반도록하는 물재와
형형의 부업경리를 발전시키 두 방면으로: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주식물로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한편 서해안과 대동강 하구에
터업기업 기업소들을 조직하여 부식물로 대량생산하는 한편 여
는 지방 협동조합에 관계하여 활로로서 작금에 비해 공공
생활에 필요한 복원에 리용되었다.

어디에서나 일을 열성적으로 조직하는 조직적 수완이 있는 리 선생은
별처 1954년에 들어서면서 용강공장이 폐쇄를 중단하게 되고 외국에
주요한 계획적 기계 시설들이 조달되어 1954년도 말 1955년도 초
에 들어 서면서 황해제철은 복구되어 굴욕은 연기를 초하였으므로
공장 대신으로 복귀는 설 재들이 대략 사정으로 실현이 나가게
되었다. 이때에 리 선생은 전시에 사용되어서와 같이
공장복구 예정표 큰 공헌을 세워 노동당 중앙 위원회 위원
하는 한편 국가 통찰을 받으며, 노련, 중국, 몽고 각국에서
노래 하며 많이 돌아다니게 되었다. 이때에 또 노련 모스
코바에 유학 갔던 장남 율리지는 대학을 취득함으로써 철학과
한 해를 더 묶어 언어-문학 분야의 칭호까지 받은 편
이며 부모는 한편 희롱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유학에 따
기고 있었다. 서양계 가정에서 아주 아름다운 기쁨이 이
루어 지고 있을 때에 북한 일대에서는 노동당 사상검정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겉으로 보아 길한 간부들은 벌써
철적, 정적 추방되고 있었으며, 사형집도에 아직 걸리지
아닌 사람들은 자기를 감은 적은 벽장같은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며 한숨짓고 눈물을 흘리는 때였다.

리훈백 선생은 사실당이 명령하는대로, 전쟁이 끝나니 장영의 견장을 예의주시하고 폐허가 된 재래의 황철에 달아가 그를 전심으로 복귀하여 국가에 생산품을 주는 최선의 성과를 얻었으나, 이곳으로 부러 북한에 들어온 간부들은 남한을 비롯하여, 동북연안, 노련 할 것 없어 모조리 청산하는 길에서는 어디로 피할 일이 없었다. 드디어 대동 1954년 경말이 되자 리훈백 선생의 사상검토가 진행된다 하여 중앙당 지르원 한병과 도당 지르원 한병이 내리와 제철 조공당단체 총회를 개최하고 리훈백 선생의 역사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전쟁도, 복구사업도 잘 하에서 공장은 잘 돌아가나, 나쁜 과거 역사로 인하여 동지리에서 철저히 하부 직책에 조동하여, 근로자의 공헌 의지로 한 일년간 단련된 다음 다시 고급지도적 직책에 등용하리라는 결론이 내렸다.

리훈백 선생의 과거 결점이란 노련 공파국의 - 공, 노련이든 사람들과의 몰에서 놀며, 노련을 파장-자랑만 하고, 몰이든 그에 대해 의심하리라는 사대주의, 조련의 모든 것은 날리뿐이며, 노련의 관료주의에, 전쟁시기에 원산에 철을두고 만일 복화하게 할 것 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서 리훈백 선생은 놀직하게 회탄 하였으며, 원래 어떤 면으로 볼런지 정직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항복한 리훈백은 자기의 실수는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맹세하였으나 사상검토 당회의 결정은 어중경고에 현직에서 철직하고 재교육으로 하부에 봉환하리라고 했다. 이런 결정을 받은 리훈백 선생은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내어 용서를 빌어하나 사상검토 총지르자 당중앙위원회장 김항만이는 그 편지를 읽고 혁명을 내면서 "당에서 내리 가라! 내리 갈 것이지, 편지는 무슨 편지인가? 노련 관료에 사상이 전파자를 용당 청산해야지..." 하였다.

리훤백 선생은 그래서 내각간부학교 시절에 3년 동안이나
 한 학교에 같이 있던 김창남씨가 이런 말실적 반부 조직
 지르자라는 것을 그때에야 알고 13 년간이나 새조선 건설
 을 위하여 과연 악전고투 하였지만 언제든 어디다 더 고추하여
 볼데도 없고, 어디서 적당한 절경을 받을데도 없다는 것을 인
 식한다음 경술, 경동혁, 김일, 기석복 등 8-7 1명이 붙여서
 "자 언제든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겠는 모양이다 어서 특히
 더 관심을 받지 말고 모스크바를 돌아가자"고 결하고 1957
 10월에 평양을 출발하여 모스크바 당중앙에 왔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리훤백 선생 일행은 8명이 볼셰비
 공산당 본부에 들어가 사실 이기로 보고한 다음 우크레인 공화국
 수도 다뉴펜스에 가서 집을 드 배정받고 가족의 생활특례도
 배정받으리라는 결론을 받게 되었다.

다뉴펜스에 도착한 일행은 우크레인 공화국 당중앙 본부에
 찾아가 사정을 보고하니 당중앙 조직부는 별치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나, 시내 칠란다르 구역에 가서 사행들을 배정
 받아 가족들로 안정 식하고 아이들과 불언들의 취직문제
 도 학교 문제로 해결한다음 간부 8명은 다뉴펜스 고급
 당학교에 가서 4년간 공부하면서 휴식하라고 하였다.
 "4년간 공부하는 동안, 강물이 많이 흘러서 환경이 변형
 되면 다시 조성에 귀국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고 하였다.
 사실 말뜻은 정당한 말이었다. 그 후 리훤백 선생 일
 행의 뒤꼬리를 붙인 제독 조선으로 복귀 보원에게 귀국하여
 다뉴펜스시, 알바다시 모스크바시 등에서 수 십명의
 이전 북한 간부들이 공부하였다. 전부다 4간씩 공부하였으
 나 "강물이 잘 흐르지 않았는지" 환경은 변형되지 않고,
 다시 북한에 돌아갈 간부도 없었다.

다만 북한에서 변경된 환경으로 인하여 소련 각 도시에 와서 공부하던 북한 유학생들이 수습생이 자기국적으로 거절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1950년에는 북한 학생 정권 모스크바 국제 대사 이상주씨가 북한 국적을 거절하고 소련의 신변 보호를 받아 모스크바 과학원에서 과학연구생으로 남아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4년여간 긴 세월은 지나가 학교를 졸업한 일행은 모스크바에서 각어한 직장에 배치될 일이 일사대위로 되었으며,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생으로 나오고 취직도 하며, 상호 결혼도 하여 장가서 집도 보이기 시작했다.



사진은 리춘백 선생의 딸 셋 배따가 자기 남편과 같은 자리아들 우리, 이노리 아나와 이노리 숙천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리순백 선생은 1961년에 고종당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해
 호시 내에 있는 고부공관 지배인으로 일년동안 일하면서,
 자기는 한인들이 짐짓하여 살고 있는 정리에 가서 일하러
 결심하고 카라갈 백악 공화국에 가서 혁명사 중앙농장 지배인
 으로 1980년 까지 일하면서 70고령이 되자 특별 개별공
 년금을 수속하여 가지고 다시 다뉴켄호시에 돌아와 평범히
 살고 있었다. 년령으로 보아서 70고령이었으나 리선생의
 사상은 건전한 공산주의자 진실한 사회주의자, 리론대로 조선을
 공산주의 국가로 개조하여 한인들은 누구나 살기 위하여 다같이
 남부럽게 살자는 사상이 견결하였다. 리선생의 항상 고민하는
 일로 단 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조선의
 하를 특히 농업
 되겠는가, 조선을 만들어 공산주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념원하시
 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리론이 개헌을 배척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리할리하는 것도 잘 리해 하였으므로, 공산주의
 경쟁력
 도는 사회의 발전적 전망이 없고, 자본주의에 비하여 뒤떨어
 질까는 것을 리해 하시었다. 그러나 리선생은 항상 중국
 의 예를
 들면서 공산주의 제도로 개방하고 경쟁 제도를 사회주의 기본
 제도에 알맞게 조절하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하시었다. 리선생은 주번이나 1990년에 1991년
 에 김일성의 초청을 받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1992년
 에도 초청장을 받았으나 장남 벌굴의 사망과 관련
 하여 가지지 못하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병환으로
 면하여 더 갈수 없었다. 리선생은 북한을 방문한 자
 기 감상담에서 말씀하시기를 - 우리 일행 양명빈, 장철
 리순백, 황성복 리세호 등 5명이 김일성을 친히 만났는데
 "자기는 당신들이 그렇게 땅에서 처벌받고 조선에서 추방
 된 것을 세상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고 하였다고 하시었다.

17

이렇게 말하신 다음 자기 일행 각각을 끌어 안아 보면서
 야, 한 무렵이 걸구나" 하시었다 - 고 하시었다. 김일성이
 이렇게 절대하여 주시나 그것은 진심으로 일일이 두도 없었나
 그러나 리춘백 선생은 그런 상대한 영접 이후 다시 북한에
 돌아갈 생각을 하든가? 하는 물음에 그런 생각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은 1993년에 우육백공화국 중앙 병원에
 입원 하였을시 찍은 것이다.

리 선생은 1992년 4월에 감수 비로리가 죽은 다음
 과잉고성으로 언양에서 건강은 매일 악화되어 갔다.
 리춘백 선생이 장기간 북한 고급지도 간부학교에서 일하신
 관계로 두안은 제자들이 남북한에서 살고 있다 또 그와
 영남이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다 북한 원산시와, 평
 양에도 4촌 5촌촌으로 되는 친척들이 있든가 하면
 서울에도 4촌들이 살고 있다 바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4촌 동생 현미원 김씨는 러시아 원동방향에 관한
 나의 영남상사를 대동하여 큰법에서 무역을 하고 있다.

리연길 선생은 현재 연세로 보아 70 고개로 오르고 ^{18.}
있는 건전한 정치가로써 6.25 적폐에 복한이 있었지만 연
연서 4촌형 리춘백 선생을 10년 대변한바로 들었다
그러나 리춘백 선생이 조양을 떠나 소련에 귀환한 후
노심을 불러 답답하던 차 1992년 에 유러백한 여학생들이
공공장 관계로 나가셨던 몇몇 사람들을 만나 리춘백 선생의 행
위를 지시하 하인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고 계획을 몇몇
차 1995년 5월에 관광단 형원으로 서북출발, 프랑스로
간다가 귀향중 모스크바에서 멈추고 무르백공화국 하유겐트
를 나와 리춘백 선생을 만나며, 또 그 자식들을 만나 접은
시간을 잊을 수가 없으니, 아주 반가운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리연길 선생은 리춘백 선생과 같이 복한이 나가 많은 일을
하시던 때라 간부들도 만나 반가운 인사도 물리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령이시고 복한에서 워선 없기 정치 생
활에 참가하신 박영빈 선생과 만나서 여러 열정적 단
기 진행되었다. 박영빈 선생은 화적 소련군의 복한이
주요하여 일을 시 소련 대를로 쓰디꼬브 장군과 같이 서울
에 가시면서 남한의 무력한 정치계 인사들과 만나 많은
인사를 나간 일이 있었다. 때론 리연길 선생은 꼭 박영빈
선생을 만나 만나 볼리고 가시겠다고 결심하고 박영빈
에 가 뵙고 돌아와 - 참 기억력이 좋더라 - 고 하시었다.
리연길 선생은 공화국 한인 중앙문화 협회에 찾아가
김보덕의 의원을 만나시고 "우리 말 큰 사건을 비롯한 대
량의 아주 긴요한 서적들과 함께 현금 원조도 하여 주어
문화 협회 일꾼들을 기쁘게 하였다. 리춘백의 선생은 리연길
선생이 집에 돌아오자 병환이 점점 더하여 공화국 제 1 중
앙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아무런 효력으로 보지 못하고 동년
즉 1993년 8월 3일에 영원히 잠드시었다.

1996년 7월 20일 하유겐트에서 장백룡. 18